

노트르담 성당 화재… 파리의 상징이 불탔다

전문가들, 실화 가능성 무거
첨탑 노동자 대상 조사 시작
복원 위해 도움 요청할 것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역사적 장소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붕괴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13세기 쌍탑과 서쪽 정면 등 주요 구조물은 불길에 피했다. 당국은 화재 진압이 마무리됨에 따라 구조물 안전진단과 함께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 소방당국은 16일(현지시간) 오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밝혔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는 지난 15일 오후 6시 50분께 첨탑, 보수 공사를 위해 첨탑 바깥으로 설치한 비계 쪽에서 시작돼 불길이 점점 확산하면서 첨탑과 지붕의 3분의 2가 소실됐다.

소방대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고 발표한 이후 이날 오전 9시까지 잔불 정리작업을 벌여왔다. 소방청은 현재 잔불 정리까지 끝났으면서도 남은 불씨가 없는지 추가로 살피고 구조물의 붕괴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서 소방대원 100여 명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로랑 뉴네즈 프랑스 내무부 차관은 “화재로 인한 위험은 이제 처리된 만큼 건물에 심각한 불거를 견딜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로 최대 800도에 달하는 고열이 건물에 가해진데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과정에서 사용한 엄청난 양



프랑스 파리의 상징으로 최대 관광명소의 하나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15일(현지시간) 대형 화재로 불길에 휩싸이자 시민들이 현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등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의 물 역시 어떤 피해를 가했는지를 정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뉴네즈 차관은 “전문가와 건축가들이 오늘 오전 미팅을 갖고 성당이 안전한지, 소방관들이 내부에서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화재 현장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성당 재건을 위한 자금 마련은 물론,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성당을 복원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번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오전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당에서 첨탑 개보수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여러 명의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화재가 방화보다는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문화 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길에 휩싸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정치·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슬픔과 탄식,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이 프랑스와 유럽, 나아가 전 세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비탄에 빠진 프랑스 국민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한 연대를

표시했다.

AFP·dpa·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엄청난데 큰 화재를 지켜보려니 너무도 끔찍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인 스테판 자이베르트는 트위터에 “노르르담의 이 끔찍한 모습이 고통스럽다”며 “노르르담은 프랑스의 상징이자 우리 유럽 문화의 상징”이라고 적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트위터에 “오늘 밤 프랑스 국민, 노트르담 대성당의 끔찍한 불길과 맞서는 긴급구조대와 마음을 함께 한다”고 썼다. /연합뉴스

‘가시면류관’은 지켰지만 ‘장미 창’ 무사할까

대성당 내외부 유물 소실 우려… 내부 목재 대부분 소실

화마가 덮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고딕건축 양식의 절정을 보여주는 건물 자체도 큰 유산이지만, 대성당 내외부에도 귀중한 유물들이 적지 않다. 15일(현지시간) 대성당 첨탑에서부터 솟구친 불길이 번져 첨탑과 지붕이 무너지면서 대성당 문화재들의 소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르르담 대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은 ‘장미 창’으로 불리는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다. 성당 내 3개가 있는 원형의 장미 창은 프랑스 고딕 양식 성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물인데, 특히 노트르담의 장미 창은 거대한 크기와 화려한 색감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서쪽 장미 창이

1225년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1260년 만든 남쪽 창은 지름 13m에 84개의 유리 패널로 이뤄져있다. 노트르담 대성당 웹사이트엔 세 장미 창을 “가톨릭 최대 걸작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세 장미 창은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화재로 인한 고열이 유리 창을 손상했으며 패널을 고정시키는 납을 녹였다는 파리 대교구의 브누아 드 시네티 몬시뇰의 말을 인용하며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와 1990년 대성당 재건을 맡았던 베르나르 폼케르니는 NYT에 “석조 아치 천장이 방화벽 역할을 해서 열 침투를 막았다”며 내부 가구와 스테인드글라스의 상

당 부분이 무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당 외벽에 있는 괴물 석상 ‘가고일’과 성당 안의 대형 파이프오르간도 노트르담의 명물이다. 여러 동물이 뒤섞인 형태의 가고일은 건물 꼭대기에서 성당을 지키며 파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여러 차례 교체되고 복원된 노트르담 대성당의 마스터 오르간은 주요 공공 행사에 사용되며, 노트르담의 오르간 연주자는 세계 최정상 오르가니스트로 추앙받는다.

대성당에는 총 10개의 종도 있다. 이중 가장 큰 무게 23t의 ‘에마뉘엘’은 2차 세계 대전의 종전 등 프랑스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알렸다. 현재도 축제나 국가 행사에 사용된다. 대성당 안에는 가시면류관과 성십자가, 거룩한 못 등 가톨릭 성물들도 상당수 보관돼 있다. 다행히도 이중 일부는 화재 초기에 꺼내올 수 있었다. AFP통



‘가시면류관’

신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후 출동한 소방관들이 재빨리 일부 유물들을 성당 밖으로 꺼냈다. 가시면류관과 13세기 프랑스 왕이 입었던 튜닉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대성당 관계자는 전했다.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썼던 가시면류관은 루이 9세가 1238년 라틴 제국 황제 보두앵 2세에게 사들인 것이다. 다른 성물과 조각상 등 문화재의 상태는 진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대성당 내부 목재 장식 대부분은 화마에 소실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한전공대 재정지원 이행협약’ 다음주 체결

나주시의회 내일 동의안 처리… 한전-지자체 문구·일정 조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전남도, 나주시와 한국전력이 늦어도 다음주중으로 ‘재정지원 이행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설립 작업이 본격화에 오르게 됐다. 오는 23일 협약체결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한전측의 사정으로 일정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다음주중 협약식 체결, 4월 말 한전공대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거쳐 특별법 제정, 범정부적 지원 체계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전남도,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공대 재정지원 이행 협약 체결 일정을 다음주중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중이다. 나주시는 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임시회 일정에 앞서 오는 18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 결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전공대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의안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발전기금으로 개교연도인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나주시는 발전기금 이외에도 공대 산학연협력센터 부지 40만㎡와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 40만㎡를 매입해 한전에 무상 제공

한다. 부지 매입에는 최소 6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동의안이 나주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남도·나주시·한전은 협약서에 명시할 ‘재정지원’, ‘부지 제공’,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등 협약서에 들어갈 이행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나주시·한전은 애초 오는 23일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재정지원 이행협약’ 체결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일정에 변동 상황이 발생해 협약 체결식 날짜를 다시 논의하는 중이다.

나주시는 또 17일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전공대 설립에 필수적인 국비 지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의사항에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사업 유치, 공대 부지 내 정주 기반 시설 조성 보조,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재정지원 협약 체결과 관련해 세부 일정 협의가 벌이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협약 체결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3년 개교를 위해서는 전남도, 나주시, 한전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지역 차원에서 준비를 서둘러 마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통합의학박람회, 10월 7일 장흥서 개막

전남도가 국내 최대 건강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6개 전·시·체협관 등 박람회장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군과 공동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장흥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박람회장에 주재료, 통합의학관, 건강증진관, 대체보완의학관, 건강음식관, 의료산업관, 6개 전·시·체협관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학 병원, 대학, 협회·단체 등 120여 통합의학 참가기관을 8월 말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통합의학학을 새롭게 재정립할 국내 학술대회를 비롯해 방송매체와 연계한 건강강좌, VTR 건강체험, 버스킹

공연, 미술갤러리, 트리아트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중이다.

통합의학컨벤션관 내 어린이 체험존, 역대박람회 파노라마 영상관, 북카페를 설치해 관람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박람회장 주변에는 2만 9752㎡ 규모의 꽃단지 조성, 20여 종의 약초공원, 음악계단 설치 등 박람회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의학 연구기관인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과 박람회장을 연결한 ‘치유의 숲길’을 조성해 힐링 장소로 꾸민다.

올해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 대한민국 100년, 청소년 건강가 미레다!라는 주제로 청소년 건강골든벨, 건강멘토링 등 청소년 체험존도 운영한다. /유현석 기자 chadol@

합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현영.010-6834-7400

교 환 전

빌딩/토지/임야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식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치~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신창동, 근린상가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례면 대지 150m거리 대지 790㎡ 3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연면 한리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한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다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곡성 임면 매실밭 13000㎡자연인생활적합 신고는 2억5천 매도 1억2천
- 정읍 신대면 상암지 1273㎡ 다세대 등 적합한 3억7천 매도·교환 8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1084㎡ 원룸·다세대 적합 8억7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완암동 대항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함평 염산면 바다 접 땅 1280㎡ 건평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충장로 47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중 12억
- 백운동로티리와 대성로티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동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계획관리지역 11607㎡ 금매입 4억5600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점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가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예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